

## IV. 기계의 철학과 기계문명의 이상

윤혜준

### 1. 제조의 철학

산업혁명은 그것의 감각적 재현과는 또다른 차원에서 산업자본주의에 대해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보다 논리적인 담론체계를 만들어냈다. “산업주의(industrialism)”라고 통칭할 수 있는 이 담론은 한편으로는 산업혁명에 대한 특정한 감각적 재현의 입장에서 출발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사회, 인간, 역사에 대한 일반론으로 추상화하면서 특정 방향으로 사회의 변화를 옹호하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오늘날에 사방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기술발전과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배적 담론들의 원류가 되는 것으로 이 중 몇 개의 고전적 입장들 및 전략을 이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혁명의 담론 중에서 산업자본주의의 이해관계에 가장 충실한 입장을 보여주는 책은 이미 위에서 인용한 바 있는 유어의 『제조업의 철학 또는 대브리튼 공장체제의 과학적·도덕적·상업

적 경제의 해설』(*Philosophy of Manufactures or an Exposition of the Scientific, Moral, and Commercial Economy of the Factory System of Great Britain*, 1835)이다. “영국 공장체제의 과학적·도덕적·상업적 경제”(p. 1)를 철학적으로, 즉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이 야심적이고도 시의적절한 작업은 그러나 그 출발점부터 중심 개념의 애매성이라는 문제에 봉착한다. 즉 제조라는 뜻의 “manufacture”라는 영어 말에는 “manu-,” 즉 손으로 만든다는 수공업적 의미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써서 그 어원적 뜻과 실제로는 정반대가 되는 기계적 산업생산을 지칭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은 이미 순수한 범주가 아닌 하나의 비유가 될 것이고, 더욱이 비유 중에도 가장 극단적인 반어법의 사례가 되는 셈이다. 이 반어법에 담겨 있는 어의의 전도 내지는 찬탈은 유어의 “제조의 철학”의 중심 주제가 된다. 저자의 말대로, 그가 다루고자 하는 가장 완전한 “제조(manufacture)”는 “손으로 하는 노동을 완전히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제조의 철학이란 따라서 생산활동이 스스로 행동하는 기계들에 의해 이끌리는 일반적 원리들을 해설하는 것이다.” 생산의 인간적 주체의 자리를 빼앗은 스스로 행동하는 기계들은 사람으로 의인화되어 제시된다. “그 널직한 홀들에서는 증기의 자비로운 힘이 그의 주위에 무수한 자발적인 하인들을 불러 모아서, 각자에게 조절된 과업을 배당해 주면서, 자신의 거대한 팔의 에너지로 그들의 고통스런 근육의 노고를 대치시키며 그 대가로 단지 그의 기량이 가끔 만들어 내는 일들에 주의할 것만을 요구한다”(p. 17) 유어가 제시하는 공장의 모습에서 증기력은 인간 조무라기들을 주위에 거느린 거대한 거인으로 변신한다. 이 변신의 초점과 목적은

무엇보다도 노동의 주체로서 인간을 대치하는 데 있다. 유어는 기계가 “고통스런 근육의 노고”를 대신해 준다는 면에서 “제조에서의 과학적 개량의 지속적 효과는 자선적인 것이다”(p. 8)라고 칭송한다. 나아가, 그것은 하나의 신학적인 의미마저 갖는다. 유어에 의하면 “노동자의 절대로 변함없는 친구, 증기기관”(p. 339)은 “‘네 얼굴의 땀이 흘러야 네가 식물을 먹으리라’는 인간의 노동에 내려진 원초적 저주를 가볍게 하고 어느 정도 폐지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축복”(p. 17)이라는 것이다. 기계에 의한 ‘노동의 종말’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유토피아적 가능성까지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혁명의 자비와 축복은 인간을 열등한 기계의 부품으로 변화시키는 비인간화를 수반한다. 그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공장의 기계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 조직이라는 시각이다. 예를 들어 방직공장에서는 “나무, 철, 놋쇠 형체들에 지적인 기능을 불어 넣어서, 자연의 힘들이 수백만 개의 복잡한 기관들을 움직이도록 해 놓았다”(p. 2)고 한다. 나아가 그는 “공장체제” 자체를 “다양한 기계적 그리고 지능적 기관들로 구성된 거대한 자동인형이 공통의 목적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 모든 기관들이 스스로 제어하는 동력에 복속된 채, 간단없이 조화롭게 행동하는 것”(p. 13)으로 정의한다. 물체들이 지능을 가진 인간의 역할을 하게 되고 “기계적” 기관과 “지능적” 기관이 동일시되는 이 관계 속에서 인간 노동자들은 오히려 가장 열등하고 가장 불편한 부품이 되어 버린다. 유어가 명시하듯이, 자동화된 기계 생산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간들로 하여금 그들의 번덕스런 작업 습성을 포기하고, 복잡한 자동기계의 변함없는 규칙성과 자기를

동일시하도록 하는 일”이고, 따라서 산업혁명의 선구자로 칭송되는 아크라이트(Richard Arkwright)의 “헤라클레스적 과업이자 그의 고귀한 성취”는 바로 “공장의 근면의 필요에 맞춘 성공적인 공장 규율을 고안해 내고 관리했다는 사실”(p. 15)이라고 주장한다. 제조의 철학이 약속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은 오히려 보다 강화된 노동의 속박을 그 실제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제조 철학”에 의하면 산업혁명의 진정한 혁명성은 단순한 ‘혁명적’ 기술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인 의미에서, 전복하고 폐기해야 할 구체적인 대상과의 투쟁에서 나온다.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여러 종류의 불규칙함에 빠지기 쉬운 교활한 노동자”를 “아이가 관리해도 될 만큼 자동으로 조절되는 한 특이한 기계”(p. 19)로 대체하는 영웅적 투쟁이다. 이 위대한 작업의 헤라클레스로서 아크라이트는 이제 정복의 영웅 나폴레옹 — “근면의 불규칙한 발자에 익숙한 일꾼들을 복종시킬 나폴레옹적인 담력과 야심을 갖춘 사람”(p. 16) — 에 비유된다. 불란서 대혁명을 찬탈한 나폴레옹의 무기가 자발적인 국민군대의 열성적인 총칼과 대포였다면 영국 산업혁명의 나폴레옹의 무기는 “과학”이다. “과학은, 자본의 부름에 응하여, 노동자들이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당한 노조를 폐쇄시킬 것”(pp. 40-41)을 유어는 확신한다. 이 위대한 과학의 힘은 나아가 거의 신화적인 위치에 까지 고양된다. 물방적기 노동자들(mule-spinners)의 과업을 제압한 한 자동기계의 예를 들면서 유어는 이렇게 말한다.

이처럼, 직공들이 적절하게도 그것을 지칭했듯이, 이 철인은 현대

의 프로메테우스의 손에서 미네르바의 명에 따라 솟아났으니 — 이 창조물은 근로계급들의 소란을 평정하고 예술의 제국을 대브리튼에 확보해 주도록 되어 있었다. 이 헤라클레스적 경이에 대한 소식은 노조에게 낙담을 퍼뜨리고, 그 요람을 떠나기도 훨씬 전에 이미, 말하자면, 무질서라는 히드라의 목을 졸라 버렸던 것이다.

(p. 367)

자본이 미네르바 여신이 되고 자본의 부름을 받은 과학이 프로메테우스가 되어서 낳은 이 “철인”이라는 기계의 영웅적 정복에 의해 노동계급은 평정되고 혼란과 무질서와 비효율로 가득찬 노동운동이라는 괴물 히드라의 목을 조른다.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적 진보의 가장 최첨단에서, 그 자체가 결핍한 영웅적 위용을 차용하기 위하여, 가장 오래된 신화적 비유로 퇴보한다. 신화와 주술의 세계에서 인간을 벗어나게 하는 과학의 일반적 속성과는 제조 철학이 찬미하는 과학은 오히려 정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유어의 『제조 철학』은 그 대부분이 산업생산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와 기계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들로 가득차 있는 책이다. 그럴수록 우리가 살펴본 순수하게 “철학적인” 대목들의 고전적인 가치가 돋보이는 것인데, 그 이후의 제조 철학은 더 이상 철학이고자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생산구조에 함축된 사회적·정치적 의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1843년에 출판된 조지 뎛(George Dodd)의 『공장들에서의 나날들, 또는 대브리튼의 제조산업의 묘사와 기계들과 제조과정의 여러 동판 삽화 예시』(*Days at the Factories; Or, The Manufacturing Industry of Great Britain Described, and Illustrated by*

*Numerous Engravings of Machines and Processes*)에 담겨 있는 대중화된 산업주의 담론에서는 산업생산을 순전히 그 기술적·공학적 측면에서만 다루고 있다. 또는 대중적 출판업자 찰스 나이트(Charles Knight)가 편집한 《런던》(*London*, 1842)지의 런던 부두 묘사에는 앞서 본 같은 대상에 대한 메이휴의 시각과는 정반대로 부두 노동자들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고, “전체 계획에서나 기계적 재원들의 적용에서의 교묘하고 숨겨 좋은 고안들”(p. 75)을 칭송하는 데 주로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제조의 철학이 기능적 연구에만 관심있는 기계공학으로 완전히 변한 오늘에 와서는 공학이 구사하는 수학적 언어 속에서 인간과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은 말끔히 제거되기 마련이다.

제조 철학이 제시하는 기계화와 산업자본주의의 영웅적인 혁명성은 정반대 입장에서 “자본의 부름에 응한 과학”에 대항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온갖 재앙의 근원으로 비춰졌다. 1842년 볼튼(Bolton)의 직조공 노조의 한 벽보는 이렇게 말한다. “본 회의는 공업지역의 곤궁의 상당한 부분이 수공업 노동의 지위를 빼앗고 남아 들고 짐이 되는 인구를 창출한 기계의 개량 탓이라는 견해이다”(Dorothy Thompson 1984, p. 276에서 재인용). 유어가 예찬한 “증기의 자비로운 힘”은 또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자비롭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힘 자체도 인간노동에 근거해 있고 거기에서 파생된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석탄광산 노동자들을 독려하는 한 차티스트 벽보는 이렇게 주장한다.

석탄이 없으면 고관대작 귀족 나으리가 자기의 사치스런 음식을

요리할 수 없다. 석탄이 없으면 철제 팔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대들의 불쌍한 동료 국민들을 그렇게도 많이 거지로 만들고, 우리의 방직공장에서 죄없는 아이들을 매년 수백만 명씩 죽이는 증기기관도…… 석탄이 없으면 이 거인 괴물 증기기관도, 일을 할 수 없다. 나의 정직한 친구들이여, 그대들의 노동이 이 증기기관의 힘을 제공하고 있다네. 왜냐하니 석탄이 없으면 그것은 무력하니까.

(Dorothy Thompson, p. 298에서 재인용)

“제조 철학”의 “제조(manufacture)”란 말에 담긴 인간노동의 언어적 찬탈과 그 철학적 추상화의 근저에서는 여전히 노동자 대중에게 내려진 “네 얼굴의 땀이 흘러야 네가 식물을 먹으리라”는 “원초적 저주”가 지속되었다. 그만큼 그 저주에 근거한 정치적 잠재력이 견지되었던 것인데, 그것은 산업생산의 가장 근저에 깔린 노동의 힘이 언제나 산업자본주의의 질서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노동의 힘이 강해질수록 제조 철학은 보다 강하고 지능적인 “철인” 기계를 통해서 인간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몰두하게 되는 것이다.

## 2. 뽀뽀몽의 기계문명 이상주의

산업혁명의 감각적 재현에 개입하는 ‘당파성’의 문제는 산업혁명에 대한 담론적 논의의 차원에서는 더욱 더 첨예하게 나타난다. 산업혁명에 대한 다양한 역사철학적 평가는 한편으로는 산업혁명의 혁명적 진보성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다른 한편 산업화 이전의 역사에 대한 복고적 이상화라는 두 극단 사이에

서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 썬씨몽(Saint-Simon)의 사상이 먼저 거론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산업혁명을 과학기술의 혁명적 힘에 의한 진보로 파악하므로, 오늘날 다니엘 벨(Daniel Bell)의 “후기 산업사회론”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이어지는 테크놀로지에 의한 사회의 진보를 주장하는 지배적 담론의 고전적 원류가 되기 때문이다. 썬씨몽의 과학기술주의는 산업혁명의 사회적 변화, 특히 공장도시 등의 생활공간이나 생산관계의 변화를 배제한 채 그 생산력의 기술적 발전에만 주목한다는 면에서 유어의 “제조의 철학”과도 일치한다. 다만 거기에 담겨 있는 진지한 이상주의는 산업자본주의의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합리화가 아닌 하나의 기계문명의 이상, 기계의 이상을 가장 포괄적으로 표현한 형태가 되도록 만드는 점이 특이하다.

썬씨몽의 기계문명에 대한 이상주의의 기초는 산업혁명이 보여주는 과학의 발전이다. 유어에 있어서 과학은 노동자들을 길들이고자 하는 자본에 동원된 힘이었다면, 썬씨몽에게는 과학이 자본가에게 이로운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전 인류적인 보편성을 갖는 문제이다. “전체 인류에게 공통의 이해가 걸린 관심사는 오직 단 하나인데 그것은 과학의 진보이다”(Saint-Simon 1952, p. 9)라고 그는 주장한다. 과학의 진보가 자본가, 노동자,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의 공통적 이해가 걸린 문제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과학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 그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에 연결되리라는 믿음이다. “종교, 정치, 윤리, 그리고 교육체계들은 단지 관념체계의 적용들, 또는 달리 말해서 사유체계를 그 상이한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과학체계가 구축될 때 종교, 정치, 윤리, 그리고 교육체계들

의 재조직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p. 21). 이처럼 썬씨몽의 과학에 대한 이상주의는 관념의 변화가 물질적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회에 대한 관념주의적 시각에 맞물려 있다. 또한 종교, 정치, 윤리에 이어진 물질적 제도의 변화의 최종적인 단계는 (산업혁명이 가장 가시적인 변혁을 이룩한) 생산관계나 가족관계가 아닌 교육이고, 이 교육이라는 매개 속에서만 생산관계에 대한 영향이 인정되는 것이다. 과학의 발전이 노동계급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실증과학에 대한 지식을 널리 확산시키고, 이 계급에게 그들의 지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오락과 관심사들을 확보해 주는”(p. 77) 것이다.

그러나 유어의 시각에서 보면 산업혁명은 바로 노동자의 지적 인 능력을 대치할 지각 있고 말 잘듣는 기계의 도래가 중심적인 내용이고, 산업혁명의 혁명성은 바로 이러한 기계들이 노동자들을 대치하는 과정에 있다. 과학기술의 혁명은 유어에 있어서는 분명히 노동계급을 상대로 한, 그들을 폐기하고자 하는 혁명이었다. 이와 반대로 썬씨몽의 과학기술 혁명의 대상은 “임의적이고 신학적인 제도들”로 이것들을 “자유롭고 산업적인 관념들과 제도들”로 대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은 프랑스 혁명으로 인한 봉건질서가 붕괴되면서 와해된 사회의 유기적 관계에 맞서서, 오직 “산업의 관념”이 “필수적이고 유기적인 사회적 유대를 제공”(p. 69)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산업의 관념”은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썬씨몽은 “산업을, 유어가 다루는 제조업이 아닌 “가장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 모든 종류의 유용한 활동, 실천적인 것들뿐 아니라 이론적인 것들, 육체적일 뿐 아니라 지적인 것들을 포함한다”(p. 70)고 주장

한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또한 추상적으로 규정된 “산업”에 포함되는 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썹씨몽의 대답은 이러하다. “산업에 가장 우호적인 종류의 조직체는 유용한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의 힘을 정치적 권력이 갖거나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정부, 진정한 공동체를 함께 형성하는 일꾼들이 그들의 노동의 산물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조정된 정부이다.” 썹씨몽의 자유방임주의는 고전 정치경제학의 그것과는 달리 경제사회의 주체를 “일꾼들”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노동자들은 생산의 주체라기보다는 자유로운 교환의 주체로 이해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완전히 자유로운 교환에 대한 기대는 후에 프루동(Proudhon)의 『빈곤의 철학』(*Philosophie de la misère*, 1846)에 이르르면 보다 직접적으로 바람직한 사회의 핵심 그 자체가 되어서, “교환의 성실함에 의해 사람들간의 진정한 유대를 창조하고” 또한 “정치적·산업적 평등을 확보한다”(Proudhon 1923, p. 411)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썹씨몽의 산업사회에 대한 추상화된 시각의 가장 핵심적인 취약점은 바로 이 “일꾼들” 또는 “가장 본질적인 생산가들”에는 봉건귀족과 승려들과 대조되는 “과학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장인(匠人)”이 포함되고, 다시 “장인”에는 “농업가, 제조업자, 상인, 은행가, 그리고 그들에게 고용된 모든 사원과 일꾼들”(Saint-Simon 1952, p. 72 주석 1)이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노동자에 과학자나 예술가를 포함시키는 문제는 일단 넘어갈 수 있다고 쳐도 상인과 은행가까지 “그들에게 고용된 모든 사원과 일꾼들”과 나란히 장인에 해당된다고 할 때, 이것의 함의가

고용과 피고용 관계, 즉 기존의 생산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재편되어 폐기된 상태를 지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다 혼란 의미에서 고용자나 피고용자가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동일한 ‘일’을 한다는 것인지 분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썹씨몽은 프루동의 “정치적·산업적 평등”을 전제로 하거나 그것을 궁극적으로 지향하지 않는다. 그는 “과학자들과 예술가”들과 함께, 분명히 산업의 지도자를 높이 추앙하면서, 특별히 강조하기를 “산업체들의 수장들은 오늘날에 사람들의 생각을 안내할 수 있기에 가장 탁월하고 다양하고 매우 실증적으로 유용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다”(p. 78)라고 한다. 또다른 맥락에서 썹씨몽은 보다 더 세분화된 계급구분을 하면서 사회를 “귀족, 금융 부르주아지, 산업계급”으로 삼등분하지만, 이 때도 “산업계급의 수장들(chefs de la classe industrielle)”의 중요성을 특별히 더 강조한다(Saint-Simon 1951, pp. 115, 141). 뒤에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이 “혼동, 궁핍, 그리고 악마들과 싸우는 투사들”로서 “산업의 대장(captains of industry)”(Carlyle 1965, p. 268)이라고 변안해서 차용한 이 칭호는 썹씨몽주의가 근본적으로 불란서 대혁명이 물려준 대중적 평등사상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썹씨몽주의의 정치적 변용의 한 흥미로운 예를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그의 『아케이드 작업』(*Das Passagen-Werk*)에다 채집해 놓았다. 1830년 7월 혁명과 그것의 반동적 귀결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시절, 파리의 콜레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설파하는 썹씨몽주의자 미셸 슈발리에(Michel Chevalier)의 「썹씨몽적 종교의 쿠데타에 의한 콜레라의 종료」(*Fin du choléra par*

un coup d'état de religion saint-simonienne)라는 글에서, 저자는 콜레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중을 계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적 쿠데타”를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Benjamin 1982, p. 727). 유어의 제조의 철학이 노동하는 인간들의 권리를 찬탈한다는 면에서 하나의 (아크라이트가 나폴레옹 역을 하는) “산업적 쿠데타”라면 썩씨몽주의의 대전제가 되는 과학기술혁명은 정치적 혁명의 기억과 꿈을 찬탈하고 마는 또다른 “산업적 쿠데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쿠데타는 오늘날 “반도체 혁명”의 시대의 썩씨몽의 후예들에게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썩씨몽주의의 또다른 지류를 우리는 새뮤얼 스마일즈(Samuel Smiles)의 『자조』(*Self-Help*, 1859)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조지 스티븐슨의 생애』(*The Life of George Stephenson*, 1857)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바 있는 이 부르주아의 “유기적 지식인”<sup>14)</sup>은 자조라는 지고의 도덕적 성취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제임스 와트(James Watt), 아크라이트 등의 “산업의 지도자(leaders of industry)”들을 바로 제2장에서 다루고 있다. 썩씨몽의 산업주의는 궁극적으로 산업혁명의 중심지 영국에서 빅토리아조 중기의 가장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의 고전적인 표현인 이 『자조』라는 부르주아 성인전 속에 응고되어 버린 것이다.

14) “유기적 지식인(organic intellectual)”은 안토니오 그람SCI(Antonio Gramsci)의 개념으로, 신부, 교수 등의 “전통적 지식인”과 구분해서, 시민사회 내의 언론, 정당 등의 장치를 통해 활동하면서 특정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지식인을 지칭한다. 19세기 영국 산업사회에 대해서 그람SCI는, 놀라운 경제적 발전에 걸맞게 “매우 광범위한 유기적 지식인의 범주”가 존재하지만 이들이 여전히 지주 귀족계급의 “전통적 지식인” 밑에 복속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Gramsci 18).

v) 썩씨몽적 이상주의는 산업혁명의 과학기술혁명이 갖는 진보성에 대한 신뢰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 신뢰는 산업혁명의 사회사적, 또는 도덕적 폐해에 대한 묵인에 연결되어 있다. 반면에 19세기의 기계문명 이상의 이면을 지적하고자 하는 비판적 입장에서는 산업혁명의 진보성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기독교 사회주의(Christian Socialism)의 시각에서 앨튼 로크(Alton Locke)라는 봉제공 시인을 주인공으로 다룬 찰스 킹슬리(Charles Kingsley)의 『앨튼 로크, 봉제공 시인의 자서전』(*Alton Locke, Tailor and Poet: An Autobiography*, 1850)에서 주인공 앨튼 로크는 그의 젊은 새 사장을 지배하는 19세기의 정신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한다. “19세기의 위대한 정신의 — 적어도 그 특별한 영광이라고 통속적으로 간주되는 그것의 — 불이 붙어서 — 그는 서둘러서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Kingsley 1983, p. 101). 19세기의 위대한 정신이 “자조”가 아니라 성급하게 돈벌이를 하려는 몰욕의 확산이라는 이 비판은 소위 보수적 급진주의(Tory Radicalism)라는 복합적인 입장을 견지한 디즈레일리의 『시블』에서는 더욱 더 강렬하게 표현된다.

삶의 인간적인 것들을 모조리 더럽히는 게걸스런 탐욕의 정신이 지난 한 세기 반 동안 영국을 따라다닌 죄였다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로 물신의 제단은 삼중의 승배로 타고르고 있다. 취득하고, 축적하고, 철학적 어구들에 힘입어 서로를 약탈하여, 오직 부와 노고로만 되어 있는 유토피아를 제안하는 것, 이것이 선거권을 얻은 영국이 지난 12년간 해온 숨가쁜 사업이다.

(Disraeli 1981, pp. 30-31)

산업사회의 지향점이 부와 고된 노동으로 양분되는 맹목적인 “유토피아”라고 비난하는 데서 드러나는 근대성에 대한 깊은 불신은 한편으로는 종교개혁 이전의 진정한 기독교적인 카톨릭 예술과 그 정신을 찬미하는 퓨진(Pugin)의 중세주의에도 연결되지만(Pugin 1969, p. iii), 다른 한편으로 산업자본주의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의 시각과도 일치한다. 러디즘(Luddism) 기계파괴운동의 한 발라드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대목은 보다 구체적이고 소박한 복고주의를 표명한다.

업계의 만장일치 의결에 의해  
이 해악의 기계들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니  
.....

현명하고 위대한 자들은 그들의 도움과 충고를 빌려 주고  
그들의 보조를 거둬들이지 말아야 한다  
옛날 식으로 가격을 받는 완전한 방식으로 하는 일이  
관습과 법에 의해 확립될 때까지.

(Thompson 1963, p. 534에서 재인용)

일값을 제대로 받고자 하는 단순한 희망이 복고주의를 지향하는 만큼 또한 현실의 전향적 개혁을 지향하고도 있다. 이러한 개혁의 조건이 기계들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라면 기계가 선도하는 근대화가 꼭 전향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방직공들의 노래가사는 보다 명확하게 기계화에 근거한 산업주의가 고매한 진보만큼 하나의 퇴보이기도 함을 역설한다.

아, 행복한 사람, 아 행복한 그대여

삼과 쟁기들로 수고를 하면서도  
그대들의 즐거움 가운데 일을 해가고  
모두 자기 일을 통제 안 받고 하는데,  
공장들 안에 몰려 있는 인파 속에  
높이 세운 굴뚝들은 검은 구름을 내뿜는데  
종을 쳐서 일 시키러 불러 모으는  
은 사방엔 노예들이 산다네.

(Vicinus 1974, p. 47에서 재인용)

썩썩의 산업의 주장들에 대한 찬사에는 산업의 노예들의 한탄이, 산업의 주장들의 진취적 발걸음에는 산업의 노예들의 끝없는 노동의 쇠사슬이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의 앞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노예들 중 상당수가 힘없고 연약한 아동들이었다는 점은 산업의 주장들의 비열함을 웅변으로 입증한다.

### 3. 오웬의 사회적 이상주의

그러나 가장 긍정적인 의미에서 썩썩적인 ‘산업의 지도자’로서 사회적 책임과 진보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려 한 사람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산업의 주장이면서도 산업의 노예들도 산업혁명의 진보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자 했던 로버트 오웬(Robert Owen)의 사상은 몇 가지면에서 획기적이다. 첫째로 그는 썩썩과 마찬가지로 산업혁명의 진보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막연한 사상이나 정신의 발전이 아닌 구체적인 사회  
✓ 관계, 그것도 노동하는 다수 대중들의 삶을 개선할 가능성 및 그 물질적 기초로 보는 이상주의를 견지했다. 따라서 그의 사회적

이상에 못미치는 산업자본주의의 실상에 대해 필연적으로 비판적이게 된다는 점에서 그는 복고주의적 비판과 유사한 입장이 되지만, 그의 이상주의는 과거에 대한 낭만적 이상화보다는 발전적 미래를 지향한다. 또한 그는 “제조업의 철학”의 기계예찬론을 거부하지 않지만 그것이 갖는 반 노동자적 당파성에 동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유여식의 시각이 갖는 근시안적인 편협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오웬이 자신이 서부 스코틀랜드 지방 뉴 라나크(New Lanark)에서 직접 공장경영을 한 체험에 근거해 설파한 사회개조론인 『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A New View of Society, 1817)의 셋째 에세이의 서문에서 그는 자기와 같은 공장경영자들을 향해 이렇게 역설하고 있다.

만약에 당신들의 생명 없는 기계들의 상태를 적절히 돌보는 것이 그러한 유익한 결과들을 만들어 낸다면 당신들이 훨씬 더 훌륭하게 구성되어 있는 당신들의 살아 있는 기계들에게 동등한 주의를 기울일 때 기대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 당신들이 이 기계들에 대해, 그들의 기이한 장치와 스스로 조정하는 힘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얻게 될 때, 그리고 적절한 동인을 그들의 다양한 움직임에 적용할 때, 당신들은 그들의 진짜 가치를 의식하게 되고 당신들의 생각을 당신들의 생명 없는 기계들에서 살아 있는 기계들로 보다 더 자주 돌리도록 즉시 유도될 것입니다 …… 영국의 제조공장들에 생명 없는 기계들이 일반적으로 소개된 뒤로,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2차적이고 열등한 기계로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pp. 5-6)

인간을 하나의 복잡한 기계에 비유하고, 인간 노동자들을 살아 있는 기계로 파악할 것을 역설하는 배경에는 이미 노동자를 단순한 기계로 보는 시각이 그만큼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노동자들에 대한 선거나 자비를 호소하는 가부장제적 논리는 통용될 수 없는 단계에서 “기계화”된 생산관계를 전제로 받아들이는 오웬이 순전히 기능적인 실리의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처지에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는 분명히 복합적인 문제의식이 뒤섞여 있다. 여기에 첫째로는 인간 노동자를 기계로 전락시킨 산업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다. 오웬의 이러한 논법은 산업혁명의 비교적 초기 단계인 1794년에 자코뱅주의자 토마스 쿠퍼(Thomas Cooper)의 다음과 같은 비판 — “당신들은 이러한 체제속에서 사람들의 대부분을 단지 기계들에 지나지 않도록 바꿔 놓아야 할 것이요. 무지하고, 방탕하고, 야수적으로 변해서, 하루 12시간이나 14시간 노동의 잉여가치가 부유한 상업 및 제조업 자본가들의 주머니에 들어가서 그들의 사치품을 공급하게 하려면 말이오” (Thompson 1963, p. 344에서 재인용) — 과 같은 선상에 있다. 또는 산업혁명이 이미 상당히 진척된 1842년, 여성주의자이면서도 사회주의자였던 플로라 트리스탄(Flora Tristan)이 개진하고 있는 보다 일반화된 산업사회의 몰화의 한 증상으로서 인간의 기계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판과도 일맥상통한다.

아이들을 그 가장 가냘픈 나이 때부터 일을 시키는 보편적인 영국적 관행은 전체 인구를 기계로 변형시킨다. 어떤 사람들은 세로 줄에 늘어진 수치나 사업 편지를 베끼는 기계로, 다른 사람들은 먼

사 방적기를 돌리고, 가죽을 꼬매고, 철을 불리고, 금속을 가는 기계로 말이다.

(Tristan 1982, p. 280)

이런 비판과는 다른 차원에서, 오웬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에드윈 채드윅 같은 중산층 개량주의자가 “일상적 힘의 손실, 즉 유리한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향유하는 근로능력의 적어도 3분의 1의 손실”(Chadwick 1843, p. 171)을 우려할 때처럼, 산업(industry)을 생산기계보다는 인간의 근로능력(industrial capabilities)으로 파악하면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각과도 매우 가깝다. 그만큼 오웬의 이상주의는 온정주의나 복고주의 또는 추상적인 휴머니즘과 구분되는 보다 구체적이고 기능주의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명백한 것은 노동자들을 중요하고도 섬세한 “기계”로 대우하자는 오웬의 제안은 단적으로 유어가 고전적으로 대변한 “제조학의 철학”의 반노동자적 시각과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오웬이 주장하는 바가 사회의 정치적 변혁이나 기존의 생산관계의 급진적인 폐기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의 뉴 라나크 체험이 입증하는 바는 환경의 개선과 교육에 의한 인간 개조의 가능성이었다. 오웬은 단순한 비유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보다 실질적으로 인간을 제조 및 개조가 가능한 하나의 섬세한 기계로 파악한다.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한 사람의 품성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언제나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주로 그의 전임자들에 의해 창출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 그들은 그의 생각이나 습성을 그에게 주거나 줄 수 있고,

이것들이 그의 행동을 지배하고 이끄는 힘이 되는 것”(Owen 1991, p. 43)이라는 주장이다. 개인의 품성의 사회적 형성에 대한 일반론에서 출발한 오웬은 보다 구체적으로 산업혁명으로 인한 독특한 인간성 형성의 문제로 들어간다. “한 나라에서 제조업의 일반적 보급은 그 거주민들간의 하나의 새로운 품성이 생기게 한다”(p. 94). 산업혁명의 진정한 혁명적 가능성은 따라서 얼마나 더욱 더 고도의 기계화된 생산을 성취할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업혁명으로 마련된 새로운 공장체제를 인간 개조에 활용할 것인가, 즉 “새로운 체제” 속에서 “자라나는 세대에 있어서는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경험한 악과 불행들의 전부는 못 한다 해도 거의 모두를 예방하도록”(p. 127) 하자는 것이다. 이 새로운 체제란, 전통적 가정과 대규모 작업장, 그리고 농촌과 공장도시를 절충한 “개인들의 제한된 공동체”들로, “공동의 노동과 지출”을 대원칙으로 하고, “농업에 기반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상호적이고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갖는”(p. 141) 사회관계이다. 미래의 발전적 지향점을 규명하고자 하는 오웬은 퓨진이나 칼라일이 과거 중세와 산업화된 현대를 줄곧 대조하는 전략과 유사하게, 현재의 산업도시와 그가 제안하는 “마을들”을 자녀양육, 가정, 생활조건 등의 차원에서 조목조목 비교한다(pp. 167-69). 오웬에 있어서 뉴 라나크라는 공장도시를 근거로 제기된 기계문명의 진보적 이상은 산업화 이전의 공동체적 삶으로의 “발전적 퇴보”로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오웬의 공동체 실험은 영국에서나 그리고 뒤에 미국에서나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고 그 사이 산업혁명은 그

가 바라는 대로 노동자들의 인간적 삶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말하자면 그 발전의 속도를 늦춰 주는 배려를 하지 않았다. 일련의 실패를 겪은 후에 오웬이 얻은 결론은 “사유재산과 지위와 조건의 불평등이 사회의 구성요소가 되는 한, 미덕과 정의 또는 사회에 대한 실질적 지식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p. 364)는 것이다. 또한 그는 결혼제도는 “인간들간의 무지한 이기심과 이중성, 간교함, 기만, 그리고 범죄의 주된 근원”(p. 323)이 존속하는 한, “무지와 악행의 깊은 수렁에서 인간성을 끌어올리는 것은 실제로 헛된 노력이 될 것이다”(p. 326)라고 한다. 그러나 사유재산이나 결혼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체제를 개편하여 인간을 개조하려는 초기 오웬의 이상은, 그것이 후기 오웬의 이러한 급진적 입장으로 발전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리주의라는 또다른 강력한 사상의 흐름과 뒤섞이게 된다.

#### 4. 공리주의의 기계적 사회인식

오웬주의와 공리주의의 결합을 보여주는 사회개조의 실제 모습은 제임스 버킹엄(James Silk Buckingham)이 제안한 빅토리아(Victoria)라는 가상의 모범도시(model town)에서 볼 수 있다. 버킹엄이 산업도시의 사회적 및 환경적 폐해를 해소할 방안으로 제시하는 이 모범도시 계획에는, 8시간 노동일을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아이들 및 여성들의 노동을 규제하고, 공공위생을 극대화하고 무료의료를 제공한다는 등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생각들이 담겨 있다(Buckingham 1973, pp. 141-56).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질서를 가시화하고 제도화할 공간적 배치는 이러한 진보적 관념들과는 사뭇 대치되는 차별적 계급사회를 지향한다. 이 도시는, 동일한 중심을 갖는 사각형들이 밖으로 점점 커지며 겹쳐 나가서 각 사각형 둘레에 서로 연결된 건물을 짓고 거기 사람이 살도록 되어 있는 사각형 건물군과 건물군 사이에 공간을 비워 두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각형 중에 가장 외곽에 있는 사각형 건물군에는 그 도시 밖에 있는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안으로 들어올수록 미세한 계층구분에 의해 점점 더 부유한 층이 점점 더 작은 사각형에 거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중심부에는 “기반이 직경 100미터인 …… 8각형 고층건물을 세워 놓고, 그 위에다 전체 도시를 밝힐 수 있는 전기등, 끄직한 조명시계, 공공 예배나 기타 다른 계층을 위한 종들을 갖추고 있는 300피트 높이의 첨탑을 얹는다”(p. 191). 이와 같이 수직적으로 분화된 공동체의 공간적 구도의 기본 취지는 “공산주의의 해악을 피하면서도 …… 조합의 이점은 모두 유지하는”(pp. 9-10) 것이다. 버킹엄의 빅토리아는 얼핏 보면 오웬류의 공동사회로 보이나, 사실상 거의 봉건적인 차별구조와 결국 그 중심에 우뚝 서 있는 탑이 상징하는 효율성의 극대화에 근거한 통치체제일 뿐이다. 이 점에서 이 공간적 이상은 산업혁명 초기에 벤담(Jeremy Bentham)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시설”이라는 뜻의 “파놉티콘”(Panopticon)이라고 명명한 한 특이한 건물모형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벤담은 그의 기계적 사회관을 특징적으로 대변하는 파놉티콘 모형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선전을 한다. “도덕을 개혁하고 — 건강을 보존하고 — 산업을 활성화하고 — 교육을 확산시키고 —

공공 부담을 가볍게 하고 — 경제를, 말하자면, 반석 위에 얹혀 놓고 — 구빈법의 얽히고 설킨 난제를 한 칼에 잘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풀어낸다 —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단순한 건축 아이디어로!” (Bentham 1962, p. 39). 이러한 칭송을 받는 “단순한 건축 아이디어”란, 중앙에 관측소가 있고 그 주위 사방에 단절된 독방 감방들이 몇 층으로 둘러 서 있는 집단수용시설이다.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그것이 단절과 감시의 극대화를 실현한 집단의 통제라는 것이다. 즉, 각 방에 수용된 자들은 서로 볼 수 없게 차단되어 있지만 그 안의 모든 행동거지가 중앙관측소에 있는 개인관측자에게는 지속적으로 감시당하는데, 이 지속적인 감시는 바로 중앙관측소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개별 감방에서는 보아서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단순한” 원리에 근거해 있다. 전체 범주를 다 둘러볼 수 있는 만능 눈 (panoptic)의 힘은 구조화되고 기계화된 눈(optic)의 철저한 비인간성, 비개인성에 근거해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미셸 푸코 (Michel Foucault)는 『감시와 처벌』(Discipline and Punish)에서 파놉티콘을 “권력을 자율화하고 비개인화”하는 “기계장치” (Foucault 1977, p. 202)라고 적절히 정의하고 있다. 이 시각적 통제기계의 “엄청난 월등함”은 무엇보다도 “그것을 적용하기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기관에든 줄 수 있는 커다란 힘” (Bentham 1969, p. 66)에 있다. 이 기계의 효용은 모든 훌륭한 기계가 다 그렇듯이 특정 용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일반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 보편적 효용은 기계의 가장 핵심적인 효용, 즉 유어의 제조의 철학에서 명시한 인간을 제압하는 힘을, 철저히 개별화된 집단성의 개념을 통해 극대화한 것이다. 벤

담은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반문한다. “자기에게 할당된 공간에선 완전히 자유를 만끽하니, 벽에다 자기 머리를 갖다 부딪치는 것보다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더 나쁜 방법이 뭐가 더 있겠는가?” (p. 47). 제한된 공간 내에서의 완벽한 자유, 개인적 반항의 공간적 봉쇄, 그리고 지속적인 감시장치의 힘을 극대화한 이 사회구성의 한 모델이 벤담 사상의 요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과장일 것이다. 그러나 벤담의 가장 개혁적인 저술의 하나인 『도덕과 입법원리 개요』(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에서, 예컨대 “쾌락과 고통의 몫의 가치, 그 측정의 방법”이라는 제목의 장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진술은 그의 인간관 자체가 얼마나 기계화되어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쾌락의 모든 가치를 한쪽에 요약해 놓고 고통의 그것들은 다른 쪽에 그렇게 모아 놓자. 이때 균형이 쾌락 쪽으로 기울다면, 그 개인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대체로 그 행동에 좋은 성향을 줄 것이고, 그것이 고통 쪽으로 기울면 대체로 나쁜 성향을 줄 것이다” (Bentham 1948, p. 31). 인간의 감성이라는 기계는 벤담에 의하면 사뭇 원시적인 기계인 저울의 모습을 띠는 것이다.

벤담의 이러한 기계적 인식들의 내적 모순의 과장은 그의 사상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의 『자서전』(Autobiography)의 한 대목에서 발견된다. 밀은 동인도 회사 (East India Company)라는 거대한 조직체 내에서의 자신의 체험에 대해 이렇게 평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나의 활동의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가 함께 작동해야 하는 하나의 기계의 그저 바퀴 하나로 나를 만들었다는

시시나  
통제  
의미·

면에서 가치있는 일이었다. …… 나는 집단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일의 어려움, 타협의 필요성, 본질적인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희생하는 기술에 대해 실질적으로 정통하게 되었다 …… 나는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것들을 습득한 것이 개인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줄곧 발견했다.

(Mill 1981, p. 87)

하나의 거대한 기계의 부속물로서의 인간을 파악하면서도 이 기계적 조직 속에서 개인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이중적 입장의 모순을 밀은 동인도 회사는 물론이고 인간사회 및 인간역사 전체를 인간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기계로 파악하므로, 말하자면 하나의 진보기계에 대한 믿음 속에서 해소하고자 한다.

나는 어떤 진보이든 언제나 이뤄지고 있었으나 완전한 달성으로 말소가 되지 않는, 뭔가 항구적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나의 행복을 갖다 놓으므로 누릴 수 있었던 행복한 인생에 대한 확신감을 갖은 것에 대해 스스로를 축하하는 데 익숙해 있었다. …… 그러나 내가 이것에서 마치 꿈인 듯 깨어날 때가 도래했던 것이다.

(p. 136)

밀의 유명한 “위기”는 바로 그가 이 꿈에서 깨어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의 행복과 전체 기계의 발전에 대한 이상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데서 도래한다.

이러한 기분에서 직접 내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할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너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실현되고 네가 바라보고 있는 제도와 견해에서의 모든 변화가 바로 이 순간에 완전히 이뤄진

다고 하자. 이것이 너에게 커다란 기쁨이요 행복이 될 것인가?’ 그러자 억누를 수 없는 자의식이 분명하게 대답했다, ‘아니다!’ 라고.

(p. 139)

“아니다!”라고 외치는 개인적 자의식의 벽이 가로막은 사회의 기계적 발전에 대한 이상은, 공리주의 계열의 사상가이면서도 사회의 발전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 맬서스(Thomas Malthus)가 제기한 인구문제라는 또다른 벽에 직면한다.

#### 5. 기계문명과 그 악몽 — 맬서스와 프랑켄슈타인

맬서스에 의하면 인간사회는 인구문제라는 영원한 제어장치에 걸려 있는 숙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음식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게 만드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인구는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물 이상으로 절대로 실제 증가할 수 없다”(Malthus 1973, vol. 1, p. 6). 이 자연의 법칙은 더욱이 명료한 수리적 원리를 갖고 있다. 즉 세계인구 전체를 가정하여 이민에 의한 인구변동을 배제할 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pp. 9-10). 이러한 수리적 원리의 궁극적인 의의가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사회의 차별적 계급구조에 대해 그럴듯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인구가 생존수단 이상으로 증가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 있다. 이 지속적인 노력은 그만큼 지속적으로 사회의 하층계급들을 곤궁에 처하게 만들고 그들의 형편을 크게 개선하는

일을 방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p. 15). 이처럼 사회의 발전에 영원히 맞물려 있는 제어장치로 작용하는 인구문제로 인해 맬서스가 제시하는바 실제 역사의 전개는, 밀이 꿈꾼 직선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 아니라 “똑같은 퇴보와 진보의 운동이 …… 반복되는” 구조가 된다.

또한 역사전개가 영원한 반복이 되게 하고 사회의 발전을 영원히 제약하는 인구의 원리는 오웬의 평등사회에 대한 이상도 궁극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오웬식의 공동생활 속에서 노동자 대중들의 생활이 나아지면 인구가 다시 늘어나게 될 것이니 모든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Vol. 3, p. 26). 맬서스의 비판적 입장에서 볼 때 오웬은 물론이고 썬서몽이나 유어의 산업혁명의 진보성에 대한 이상도 마찬가지로 인구라는 절대 제약에 봉착하고 만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느라 다양한 목적의 다른 산업을 지도하지 못하는 …… 그런 나라는 자본의 증가에 의해서 이윤율이 줄어든다는 것을 곧 발전하게 될 것이고 …… 그 어떤 기계의 교묘함도 일정한 시기가 지난 후에 낮은 이윤과 낮은 임금, 그리고 그것들의 자연스런 결과인 인구에 대한 억제에서 그 나라를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Vol. 3, p. 81). 산업혁명이 인류역사에 기여하는 것은 기계적 발명에 의해 삶의 질을 높여 준다는 면이 아니라, 산업화에 수반되는 열악하고 유해한 생활조건을 지속시켜서 인구증가를 제약한다는 부정적인 면이다.

비록 기하급수적인 인구증가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일이나 …… 사회와 문명의 발전의 자연스런 결과들의 어떤 것들은 필연적으로

그 완전한 효과를 억누른다. 보다 특별히 말하면, 우리가 무슨 대단한 물질적 변화를 보고자 거의 희망할 수도 없고 기대는 확실히 할 수 없는 큰 도시와 공장들이 있는데 …… 이것들은 시골의 상황이나 시골의 직업들보다 언제나 덜 건강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인구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억제로 작용하여 예방적 억제의 필요를 어느 정도 줄여 줄 것이다.

(Vol. 4, p. 256)

인구에 대한 “적극적인 억제”란 “인간 생명의 자연적 지속 기간을 줄이는 데 어떤 정도로든 기여하는 …… 모든 원인”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모든 건강에 유해한 직업, 심한 노동과 기후에 노출되는 것, 극심한 가난 …… 대도시 …… 일반적 질병과 전염병, 전쟁, 역병, 기근”(Vol. 1, pp. 13-14) 등이다. 인구를 줄여 준다는 면에서 인류에게 “이로운” 재해들 축에 산업혁명이 끼어 있다는 면에서 그 궁극적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사회적 환경이 인간의 번식과 대립적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맬서스의 문제제기는, 그 관념적인 단순함을 견어내고 나면, 산업혁명이 인간번식의 기본단위로서 가족구조에 미친 변화라는 보다 실질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맬서스의 생각대로 단순히 공장이 시골의 직업보다 “덜 건강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면에서, 산업생산의 기계화에 의해 성인남자 노동력이 여성 노동력으로 대체되는 과정은 ‘인구’에 대한 하나의 ‘억제’로 볼 수 있다.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는 노동계급의 경우, 인구증가의 기본이 되는 여성의 모성적 기능과 그러한 ‘모성’에 근거한 가족구조가 급격히 도전을 받았다. 이 부분은 산업혁명의 폐해에 주목했던 중산층 지식

인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문제였다. 예컨대, 디즈레일리의 『시블』에서 강조하는 산업혁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통적 가부장제 가정구조의 붕괴이다. 작가는 한 인물의 입을 빌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여인을 그녀의 영역에서 쫓아내었고, 여인을 노동의 시장에 들어오게 해서 임금을 줄여 놓았소. 그러나 이러한 여권하에서 우리가 가정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실현이 불가능한 조건이오” (Disraeli, p. 109). 또는 채드윅이 그의 보고서에서 인용하는 “버밍엄의 내과 및 외과 의사들 위원회”의 다음과 같이 매우 전형적인 우려를 예로 들 수 있다.

여성들은, 어린 가족구성원들의 벌이가 가족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하는 고로, 필요에 의해 어릴 적부터 작업장에서 크게 된다. 여자아이들의 생각과 도덕은 타락하게 되고, 그들은 남편의 집안을 안락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모든 습성에 대해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

(Chadwick 1843, p. 205)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중산층의 입장에서 볼 때, 산업혁명의 가장 부정적이고 위험한 결과인 노동운동도 전통적 가정의 붕괴가 야기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개스켈은 『메리 바튼』의 앞 부분에서 존 바튼의 지극히 가정적인 아내가 죽은 것과 그가 차티스트로 발전하는 것을 밀접히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땅의 온화한 인간성으로 묶어 놓을 수 있는 끈 중의 하나가 풀어졌고, 이웃들은 그후로 그가 사람이 바뀌었다고들 모두 말을 했다…… 그는 [노동자] 클럽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의 적극

적인 회원이 되었던 것이다.

(Gaskell 1970a, pp. 58-59)

가정의 붕괴에서 산업자본주의의 노사갈등이 야기된다면, 마찬가지로 논리로 사적인 가정생활은, 캐서린 갤라거(Catherine Gallagher)의 말대로, “사회적 세계에서 해소될 수 없는 대립들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제쳐 둔 영역”(Gallagher 1985, p. 114)으로 남는 것이다. *Wallerstein : 2차산업혁명시대의 가정*

이 모든 경우에 중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과 가정, 특히 메리 푸비(Mary Poovey)가 지적하듯이, 모성의 주체로서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통념이 흔들린다는 사실이다(Poovey 1988, p. 7). 단적으로 『메리 바튼』에서는, 전통적인 어머니 겸 아내가 부재한 상황에서 아버지와 공장에 다니는 딸 메리 바튼의 ‘결혼가정’이 중심이 되고, 더욱이 아버지의 정치활동으로 인해서 딸 메리의 직업이 가정의 주된 수입원이 되는 상황으로 변한다. 어느 면에서 산업혁명의 가장 혁명적인 효과는 바로 이처럼 여성을 전통적 모성으로부터 분리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산업혁명 시대의 한 여성 작가의 모성에 대한 기묘한 명상, 즉 메리 셸리(Mary Shelley)의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Frankenstein, or The Modern Prometheus, 1818)의 의미를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메리 바튼처럼 가정에서 공장으로 불려나가 기계 앞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시대에 쓰여진 이 공상과학소설에서 작가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한 젊은 청년학도의 과학기술, 인구, 사회진보에 대한 독특한 이상과 그 이상의 파국을 다루고 있다. 감히 “한 인간

의 창조”(Shelley 1969, p. 53)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도전하는 프랑켄슈타인은, 그의 엄청난 산업공학적 내지는 유전공학 적 꿈의 이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삶과 죽음이 내게는 공상적인 경계로 비쳤고, 내가 이것을 처음으로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어두운 세계에 빛의 줄기를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인간의 종(種)이 나를 그 창조자요 근원으로 축복할 것이다.

(p. 54)

그러나 산업생산에 있어서 아무리 완전한 기계라 해도 인간노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듯이, 또한 인간 노동자를 대체하도록 산업자본주의가 창조한 노동하는 기계가 여전히 인간노동의 제조물임과 동시에 최소한의 인간노동에 의존해 있듯이, 이 유전공학생산에서의 인조인간의 제조도 인간, 그것도 죽은 인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나는 낱알당에서 뼈를 모았고, 불경스런 손가락으로 인간 형체의 가공할 만한 비밀을 헤쳐 놓았다. 다른 방들과는 긴 복도와 계단에 의해 격리돼 있는 집 꼭대기의 한 독실 또는 감방이라고 할 곳을 나는 내 불결한 창조의 작업실로 삼았다 …… 해부실과 도살장은 내 재료의 많은 것들을 제공했다”(pp. 54-55). 주검과 생산제조의 관련성은, 마르크스의 『자본론』(*Capital*, 1867)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지적속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노동의 도구는, 그것이 하나의 자동인형으로 의 변환에 힘입어서, 노동자에게 노동과정의 진행되는 동안에 자본, 즉 산 노동력을 지배하고 빨아들이는 죽은 노동의 형태로

맞선다”(Marx 1977, p. 548). 인간제조에 나선 프랑켄슈타인의 산 노동은 문자 그대로 죽은 노동, 즉 시체의 팔과 다리 등과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 죽은 노동은 그의 산 노동을 통해서 사람 아닌 사람, 하나의 유기체 자동인형으로 변환되고자 하는 것이다. 프랑켄슈타인의 산 노동력을 빨아들이는 이 “불결한 창조” 작업은, 자동인형으로 변신한 자본만큼이나 고통스러운 노동을 요구한다.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은 그의 고매한 이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작업할 때 자신의 처지가 “예술가가 자기가 가장 좋아 하는 일에 몰두한 것이라기보다는 광산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건강에 해로운 직종의 고역을 하는 노예가 된 운명인 사람 같았다”(p. 56)고 고백한다.

이 작품의 대부분은 이렇게 해서 ‘낳은’ 이름 없는 괴물과 그의 제조자이자 ‘어머니’인 프랑켄슈타인간의 숙명적인 관계를 추적하고 있다. 이 둘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기 전에 제시되는 한 장면에서 우리는 이 공상과학소설에 깔린 산 사람과 시체, 모성과 여성상에 대한 복잡한 심리를 발견한다. 괴물을 제조한 후에 프랑켄슈타인은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랐고 약혼을 한 상태인 엘리자베드라는 여인에 관한 이러한 꿈을 꾸다.

나는 내가 엘리자베드가 아주 한창 피어난 건강한 모습으로 [그가 공부하던] 잉골스타트(Ingoldstadt) 시 길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반갑고도 놀라서 나는 그녀를 껴안았는데, 그러나 내가 첫번째 키스를 그녀의 입술에다 했을 때 그녀의 입술은 죽음의 색조로 창백해지고 그녀의 얼굴 모습은 변한 것처럼 보이더니, 나는 내가 팔에 내 죽은 어머니의 시체를 안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형체를 수의가 감싸고 있었고 나는 플라넬 옷주름에

서 구더기들이 기어다니는 것을 보았다. 난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깨어났다.

(p. 58)

잠에서 깨어 눈을 뜨자마자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가 만든 괴물이었다. 프랑켄슈타인의 생물학적 재생산의 동반자인 그의 애인이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어머니의 시신이 되고 다시 시체를 조합해 제조한 그의 인위적 인간 생산물로 변하는 이 복합적 관계에 얽혀 있는 생물학적 인간 “생산”과 인위적 인간 제조의 대립은, 이 괴물이 자기의 배필을 제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단계로 발전한다. 인간 여성들에 대한 욕망이 실현되지 못하는 이 괴물은 그의 제조자에게 말한다. “나는 다른 성의, 그러나 나처럼 흥직한 피조물을 요구하오. 그것이 즐거움은 별로 없는 일이겠으나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이니 나는 만족해야 할 것이오”(p. 144). 그런데 이 욕망을 실현시켜 주려고 작업을 하던 프랑켄슈타인은 일종의 멜서스적인 악몽에 봉착한다. “그들이 유럽을 떠나서 신대륙의 사막에 살더라도, 이 악마 녀석이 목말라 한 교감의 첫째 결과 중 하나가 자식들일 것이고, 지구상에 악마의 종족이 퍼져나가서 인간 종의 존재 자체도 위태롭고도 공포에 가득찬 것으로 만들지 모른다”(p. 165). 그리고는 만들고 있던 괴물의 배필을 산산이 부숴버린다.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괴물은 그의 창조자의 애인을 죽이게 되고 둘은 해소될 수 없는 원한관계로 서로에게 얽매인 채 서로에 대한 복수를 위해 땅끝까지 쫓아다닌다.

그러나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의 악몽은 산업혁명에 의해 실제

로 다른 형태로 실현되고 있었다. “자본의 부름에 응한 과학”이 창조한 기계들의 비약적인 번식 앞에, 기계화에 의해 점차 폐기되는 인간 노동자들의 종족은 그야말로 “위태롭고도 공포에 가득찬” 것이 되었고, 이 과정은 20세기의 종반부에 이르러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산업자본주의 기계라면 정반대편에서는 자신의 생존권과 욕망의 실현을 주장하는 노동자 및 실업자 대중들이 잠재적으로 거대한 괴물, 그것도 바로 자신들이 창조해낸 괴물로 비칠 수 있다. 이러한 후자의 해석의 고전적인 예를 엘리자베드 개스켈의 『메리 바튼』에서 보게 된다. 주인공의 아버지 존 바튼이 차티스트로 변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앞서 작가는 다음과 같은 일반론을 펴력한다.

내가 보기엔 교육받지 못한 자들의 행동은, 여러 인간적 소양은 있으나 영혼이라는 선물을 받지 못해서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지식이 없는 괴물 프랑켄슈타인에 정형화되어 있는 것 같다.

민중은 솟아 올라서 살아나고,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겁나게 하고, 우리는 그들의 적이 된다. 그리고는 우리가 힘으로 승리한 그 서글픈 순간에 그들은 말 없는 원망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본다. 왜 우리는 그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강력한 괴물로, 그러나 평화와 행복의 내적 방편이 없는 상태로?

존 바튼은 차티스트였고, 공산주의자였고, 일반적으로 난폭하고 몽상적인 그 모든 것이 되었던 것이다. ……

(Gaskell 1970a, pp. 219-20)

그러나 프랑켄슈타인의 괴물과는 달리 이 “강력한 괴물”은 종

죽의 번식을 지속적으로 했을 뿐 아니라, 인용의 문단 전개에서 드러나듯이, 자신을 정치적 세력으로 조직화하고 사회의 변화를 도모해 왔다. 산업혁명이 개시한 이 괴물의 끝없는 창조 및 동시에 그 괴물과의 끝없는 싸움이라는 모순적 전개는 근대성의 가장 근본적인 축을 이룬다.

기계가 아닌 사람 .

## V. 산업사회에 대한 인문적 대응 — “문화와 사회” 전통

송승철

### 1. 근대적 문화 개념의 복합성과 형성과정

지금까지 우리는 산업혁명시대에 태동한 기계에 대한 또한 기계적 환상의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았다. 기계문명시대를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은 기계와 가능한 한 친숙해져서 기계의 습성과 논리에 인간의 속성들을 맞추는 것이다. 인간이 기계를 닮아가도록 자신을 적응시키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간주의적 견해는 편견일지도 모른다. 기계도 인간의 두뇌가 만들어낸 산물인만큼 인간의 어떤 속성을 갖고 있으니 인간과 기계의 합일은 일종의 인간회복의 경지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인간성의 기계적 변용의 불확실한 미래를 접하기 전에, 인간은 인간의 환상, 능력, 한계, 가능성에 대한 가장 오래된 자료들에 근거하여 망각하기 쉬운 인간의 과거 모습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일이 필요하다. 더이상 우